진짜사나이 에 여군이 떴다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제3029호 www.metroseoul.co.kr

이종석 中 패션브랜드 모델

집단폭행 사진 공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4일 열린 육군 28사단 집단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일병의 사진을 공개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고 있다

윤 일병 은폐의혹 국민은 분노

여야 의원 "軍수뇌부 문책하라" 한목소리 질타
구조적 문제 밝혀 병영문화 전면쇄신 나서야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이 사실을 군 당국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수뇌부 문책론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8사단 사건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6일 오후 윤 일병이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쓰러지자 "윤 일병이 음식물 취식 중 의식을 잃었다"고 소속 대대 지휘통제실로 보고됐다가 당일 밤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윤 일병이 쓰러졌다고 정정 보고됐다.

28사단 헌병대는 다음날인 4월7일 선임병들이 사고 당일 윤 일병을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군 검찰이 5월2일 피의자를 기소할 때는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였으며 매일 야간에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고 간부가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고 발생 다음날,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언론에 알렸을 뿐, 이후 윤 일병이 당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군 당국의 윤 일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수심의 가해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군 역시 쉬쉬하고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군 수뇌부 문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진상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월 1일부로 윤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윤 모 일병이 복무했던 경기 연천의 28사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 ### "의혹 추가 수사"
> #### 28사단장 보직 해임
>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
>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
> 한 장관은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전투기 구경하는 어린이들 4일 오전 대구지역 한 보육원생들이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F-15K 전투기를 구경하고 있다. /공군 제공

대한민국 '명량'에 열광하다

저성장 늪·세월호 정국… 이순신 장군 '울림'에 카타르시스

Issue&View
영화 '명량'

김민준 기자 mkim@metroseoul.co.kr

화끈한 리더의 부재로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영화 '명량'에 열광하고 있다. 개봉 첫 날 68만여 관객을 끌어모으며 최고의 오프닝을 기록하더니 지난 3일에는 관객 125만 3653명을 동원, 전날 기록한 일일 최다 관객 수 기록(122만 9016명)을 하루 만에 갈아 치웠다. 개봉 첫 주말 누적관객수가 475만 명을 넘어섰고,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것 역시 신기록이다.

대한민국이 '명량'에 열광하는 이유는 난세를 뚫고 일어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카타르시스를 느꼈기 때문이다.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수경기까지 바닥을 기고 있다.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 대외 경제여건마저 쉽지 않아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그러나 이를 헤쳐나가야할 정치권은 세월호 정국에 매몰돼 이권다툼만을 일삼고 있다. 각 부처 리더들은 변명만을 일삼은 채 식입 회피에 급급하다. 경기 회복과 공무원 비리 등을 막기위한 수많은 경제·사회 법벽들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겁겁은 죽은 유병언을 잡기위해 40일 넘게 수사력을 낭비했다. 답답한 이때 관객들은 이순신 장군에 잠시나마 위안을 삼았다.

영화 '명량'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다.

해남군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 울돌목. 이순신은 12척의 배를 이끌고 적장 구루지마와 정면대결 한다. 300여 척의 거대 함선을 보고 질리한 수하 장수들은 뒤로 슬슬 도망치려 하지만 이순신은 홀로 적들과 싸우며 이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인 것이다.

이순신은 또 "장수의 의리는 충(忠)에 있다. 충은 백성을 향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는 말로 가슴을 울린다.

"두려움에 맞섰던 충무공 이순신의 기적 같은 승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길 바란다"던 김한민 감독의 연출 의도는 거의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추락한 프로야구 심판 권위

기자 수첩
양성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프로야구 심판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에도 심판 판정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19일 문학 삼성전에서 SK 외국인 투수 로스 울프가 최수원 구심의 볼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큰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NC 다이노스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이 경기 도중 심판 면전에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쉬렉은 3일 SK전에서 팀이 2-0으로 앞선 1회말 1사 1·2루 이재원 타석에서 자신의 초구가 볼판정을 받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심판에게 다가가 불만을 쏟아냈다. 방송 중계화면에는 쉬렉이 김준희 구심을 향해 "XX XX이" "Fxxk you" 등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다.

올해 유독 심판 오심 논란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시즌 노히트노런을 기록하며 기량과 인성에서 모두 최고 외국인 투수라는 극찬이 자자했던 선수의 돌발이라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판정의 잘잘못을 떠나 쉬렉이 불만을 표현한 방식은 잘못됐다. 쉬렉은 4일 열린 징계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중징계를 받았다. 순간적으로 볼 판정에 흥분했다고 하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다.

야구 관계자들은 "올해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한 명씩 늘어나면서 사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외국인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국내 야구 수준을 높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관리해야 하는 것이 구단의 책임이다.

뉴스&뉴스

"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 평등권 위배"

● 법관임용에서 로스쿨 출신들에게만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은 4일 "연수원 출신은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되는데 로스쿨 출신만 법률서면 작성이라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위반"이라며 7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당직 인선 '유승민 고사'에 지연

● 새누리당의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 주요 당직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4일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력한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3선의 유승민 의원이 총장직을 고사하면서 전체 당직 인선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사내유보금 과세' 세율 조정

●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실무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번주 중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율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추인된 박영선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비상대책위원장에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퇴 이후 당을 이끌어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박 비대위원장은 당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 인선을 비롯해 혁신 작업 등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상임고문단을 비롯해 의원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당 비상대책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한 당내 여론을 수렴했다. 그 결과 유일한 선출직 지도부인 박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며 "우리 모두가 무당무사의 정신으로 임해야 된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에볼라 유입 막아라

정부 추적조사·검역 강화… "차단 가능" 공포 확산 경계

높은 치사율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항·항만 등의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에볼라 유행지역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잇따임 추적 조사도 진행 중이다. 선제적 대책으로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지역에 의료진과 중앙역학조사관을 파견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외교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주재로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해외여행자 안전과 현지 교민 대책 ▲검역 강화와 감염 예방 대책 ▲대국민 설명 홍보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따로 브리핑을 통해 "에볼라 출혈열은 치사율이 25~90%에 이르지만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차단할 수 있다"며 일단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경계했다.

아울러 양 본부장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분명히 전했다.

7월 말 기준으로 에볼라 출혈열이 퍼진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기니 45명 ▲라이베리아 25명 ▲시에라리온 88명 등 모두 158명이다.

또 보건당국은 현재 서아프리카 3개국(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환자 접촉이 없었더라도 에볼라 출혈열의 최대 잠복기를 고려,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21일동안 관할 보건소에서 증상 여부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추적조사 대상 21명 가운데 13명은 '증상발생 없음'으로 판정됐고, 8명은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illegible]기자 mjsun@metroseoul.co.kr

'재판 결과 불만' 변호사 사무실 방화 경찰 과학수사계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 발생한 화재를 감식하고 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휴지로 감든 심을 꽂은 석유통에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방화했다. /연합뉴스

태풍 '할롱' 주말 제주·남부 영향

강력한 위력을 가진 제11호 태풍 '할롱'이 북상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할롱은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130㎞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현재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hPa)에 최대풍속 초속 53m, 강풍반경 470㎞로 강도는 '매우 강', 크기는 '중형'급이다. 초속 40m 이상은 달리는 차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력이다.

기상청은 "할롱이 이번 주말 서귀포 남쪽 해상으로 북상함에 따라 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9~10일에는 남부지방과 강원영동 지방에 비가 내릴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윤다혜기자

그린벨트 영업 무더기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2개월간 북한산·수락산·청계산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 음식점 등 20곳(위반행위 2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건축물 20곳 가운데 14곳은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영업장을 짓거나 확장해 장사를 한 음식점들이다. 그린벨트를 훼손한 21명은 형사 입건됐다.

특사경은 "여름철 특수를 노리고 그린벨트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 등으로 불법 확장한 음식점이 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llegible]기자

인천공항 발열 입국자 검역 강화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4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공항 직원이 열감지기에 의해 발열이 감지된 여행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제보 묵살' 순천서 감찰

경찰관 3명 "별장 비밀공간 있다" 묵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에 '비밀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제보 전화를 순천경찰서 경찰관 3명이 받았으나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4일 "순천서가 시민의 제보전화를 받고도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해 정보과 경찰관 3명과 수사과 경찰관 1명이 각각 제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4명 중 1명은 송치재 별장과 관련 없이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별장의 은신처 관련 제보를 묵살한 경찰관은 3명이다.

앞서 순천에 거주하는 J(59)씨는 "TV에서 '경찰이 유씨 은신처를 급습했으나 놓쳤다'는 뉴스를 보고 순천서와 인천지검에 전화를 걸어 비밀공간의 존재 가능성을 알려줬다"고 지난달 24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순천서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J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을 격리한 상태로 J씨와 전화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윤다혜기자

'포천 빌라 사건' 거짓말탐지기 동원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4일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큰아들이 "아버지가 10년 전에 자연사했다"고 증언한 것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의 방향을 정하거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씨가 사는 빌라 내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시신 2구 중 이씨의 내연남이자 전 직장동료 A(49)씨에 대해서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도 발부돼 의문점이 다소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A씨 시신 아래에서 발견된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원인과 사망 시기, 시신 유기 경위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친인척 조사와 의료기록 등을 검토하며 이씨 남편의 사망시기와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이씨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이씨의 큰아들 박모(28)씨에 대해서는 5일 조사를 진행한다. /윤다혜기자

토마토축제 국내에서도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시가지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4 화천 토마토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4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4일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고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다. /[illegible]기자

부영공원 문화재 발굴 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영공원에서 기호문화재연구원 관계자들이 문화재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원 일대는 과거 일본군의 군사무기를 제조하는 조병창이 있던 곳으로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 출두하는 현역의원들

조현룡·박상은·신계륜·김재윤 등 금품수수 의혹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된다. 출처 불명의 뭉칫돈이 발견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 역시 같은 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를 둘러싼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

현역 의원이 금품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는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이후 2년 만이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4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08년 3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자신의 차량과 장남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박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운전기사 A(38)씨가 박 의원의 여무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박 의원 장남 집에서 발견한 현금 6억원의 출처를 추적해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이날 신계륜·김재윤 의원의 보좌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해당 보좌관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민성(55) 이사장 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호기자 mkim@metroseoul.co.kr

이혼 때 노령연금 양도·포기 안돼

노령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4일 전처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A(67)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3월 아내 B(62·여)씨와 27년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했다. 각자 재산을 가져가고 상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B씨는 2007년 공단에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 수급권은 포기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유선준기자

4차례 '살인예고' 무시한 경찰

경찰이 '살인 예고' 신고를 수차례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아 살인 미수 사건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전북 군산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오모(18)씨는 만취한 조선족 근로자 심모(40)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의 전형이었지만 심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는 4차례나 있었다.

심씨는 범행 전 전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예고했다. 또 범행 후에도 두차례나 범행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고를 하고 서야 현장에 출동했다.

/김현준기자

휴전선 횡단 완료했습니다 7박8일간 진행된 '2014 휴전선 155마일 횡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4일 오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행사종료한 통일결의식을 마친 뒤 모자를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근무하는데~"

수억 뜯어낸 50대 구속

인천 강화경찰서는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민원 해결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청와대 경호팀에서 근무한다고 속이고 청와대에 취업을 알선해준다거나 교통사고 합의를 돕는다며 지인 10여명으로부터 5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혜기자

해운대 청소 작업 민관군이 4일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쓰레기 더미에 잠식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경 공채에 6만명 몰려

역대 최다 경쟁률 17대 1

경찰청은 올해 제2차 순경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역대 최다인 6만1297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차 시험에서 일반 공채 2790명(여경 558명), 경찰행정학과 특채 370명 등 총 35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 수는 올해 1차 시험(5만5609명)과 비교해도 10%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경쟁률은 17.2 대 1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어·영어·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도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기업 취업 준비생이 많이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 2만명 증원에 맞춰 단계적으로 순경 공채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30일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신체·체력·적성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12월 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다혜기자 y@metroseoul.co.kr

피서지 돌며 차량털이

문 안 잠긴 차만 노려

부산 사상경찰서는 피서지나 유원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혐의로 김모(29)씨를 4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여는 수법으로 노트북, 카메라를 훔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에버랜드를 비롯해 가평의 한 계곡, 남양주 등 경기도 일대 유원지의 피서지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김다혜기자

metro HongKong

metro France

똑똑한 도시 1위 리옹

프랑스의 '똑똑한 도시' 순위가 공개됐다. 엠에오시티가 진행한 한 조사 결과 프랑스에서 가장 똑똑한 도시로 '리옹'이 선정됐다. 인터넷 시회연결망 및 서비스 혁신 수준이 높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북부도시 릴, 낭트, 이지 레 윌리노, 파리가 순서대로 2,3,4,5위를 차지했다. 선정된 이유론 재생에너지 활용률, 도시 내 에코지역 조성, 의료 및 공공서비스, 물 사용 절약 등이 있었다.

metro Russia

달리 그림 속으로 풍덩

최근 모스크바 선라이트스튜디오 갤러리에서 멀티미디어 전시회 '달리-살아있는 화폭'이 개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은 화폭에 둘러 싸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색적인 그림 배치 덕분이다. 전시회 관계자는 "대형 스크린을 둥글게 설치했다"면서 "관람객이 갤러리에 들어서면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의 그림 속에 들어왔다는 착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0세 '동갑 부부' 해로 비결은?

결혼 78주년 남다른 애정 과시 · "노숙해도 남편과 함께 있으면 행복"

중국 광둥성에 사는 100세 동갑내기 부부의 변치 않는 사랑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914년에 태어난 완화더, 스샹아이 부부는 올해 나이가 만 100세다.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시기에 이 부부는 연애 결혼을 했다. 학교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3년간 교제한 뒤 1936년 22세의 나이로 결혼했다. 부부는 올해 결혼 78주년을 맞았다.

결혼하던 당시 전쟁이 끊이지 않아 부부는 여기저기로 도피해야 했다. 홍콩, 장먼시, 잔장시 심지어 베트남까지도 피난을 갔다. 자식을 데리고 노숙하기가 일쑤였지만 부부는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스샹아이는 당시를 회상하며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힘든 게 대수인가"라고 말했다.

저녁놀각 시절부터 지금까지 80여년을 함께했지만 부부는 여전히 남다른 애정을 과시한다. 두 사람은 항상 같이 앉아서 신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100세의 나이에도 부부는 눈도 어둡지 않고 정신도 맑다.

완화더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스샹아이는 지난해 넘어져서 보조기구를 사용하긴 해도 마당을 천천히 거닐 수 있다. 슬하에 아들 다섯을 둔 부부는 첫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둘째 아들 부부와 살고 있다. 아들의 나이도 76세가 넘었다.

완화더는 "우리 가족에게 장수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며 "남동생, 여동생도 90세가 넘었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누나도 100세를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자 스샹아이는 "우리는 아직 건강하다.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넷째 며느리 황루어민은 "두 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시어머니는 명랑하고 활달한 반면 시아버지는 진중하고 내성적이다. 그래서 서로 더 조화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백로 비결을 밝혔다.

현재 4대가 함께 사는 완씨 가족은 식구가 스물아홉 명이다. 오는 10월 완씨 부부의 일곱 번째 증손녀가 태어나면 이 대가족의 서른 번째 식구가 된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Brazil

쓰레기 버리다 적발 벌금 11만원 물린다 애견 배설물도 처벌

브라질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이제 250 헤알(1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파울루 할레신드리바르보자 시장은 최근 길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 안에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차량을 버리는 행위도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어 시민들은 대체로 어를 반기는 분위기다.

새 법안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바르보자 시장은 감시 인력에게도 월 250 헤알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현재 상투스 시에는 350명의 병력이 근무 중이며 연말까지 150명이 추가로 고용될 예정이어서 경찰은 추가 수당 지급과 함께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플라비우브리투 주니오르 경관은 "법안은 쓰레기 투기 외에도 보지 불법 사용, 공공장소 내 소란행위,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한 불법 인도 점거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쓰레기 없는 도시(Cidade Sem Lixo)로 명명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는 150 헤알(7만 원), 길에 차량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1000 헤알(4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시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과 7월 20일 사이에만 도시 내에 470대의 차량이 버려진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증명했다. /정리=손용원 인턴기자

market index <4일>

코스피	2060.42	(+7.32)
코스닥	549.81	(+8.52)
금리	2.56	(+0.01)
환율	1033.00	(-5.00)

수능 준비됐나요? 수능시험을 101일 앞둔 4일 서울 모닝글로리 혜화점에 D-100 플래너, 방석 등 수험생을 위한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직장인 60% "이직 고민 3번↑"

● 대부분의 직장인은 다니는 직장이 있어도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863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이직을 한번 이상 생각한 직장인 비율이 93%나 됐다고 4일 밝혔다.

이직 고민 횟수로는 1~2회가 32.5%, 3회가 12%, 4회가 넘는다는 답변은 48.7%였다. 직장인의 60%가량은 최소 세번 이상 이직을 고려한 것이다. 이직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복리후생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어 '조직 비전에 대한 신뢰 부족'과 '본인 업무 불만'이 거론됐다. /장윤희기자 unique@

경제자유구역 21.6% 해제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5일부터 지정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이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된다.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 2011년 8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법률에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른 결과다. /세종=송추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길(낙원동)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91
2005년 5월 24일 등록 서울 가00091

동양사태 소송전으로 번질까

피해자단체 금감원 배상비율에 반발
감독책임 물어 분쟁조정 재심의 요구

Issue&View 끝나지 않은 동양사태

/김현정기자 hjk@metroseoul.co.kr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에 반발하면서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으로 비화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지난 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대한 감독책임 배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결정서를 발송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번 주 안으로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동양증권이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화해의 효력이 생겨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법행위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달 31일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조정 신청을 한 전체 건수의 67.2%(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증권의 사기 발행·판매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일단 배제하고 불완전판매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았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1만2441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 625억원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53.7%를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총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는 셈이 됐다.

그러나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회사채 피해자를 역차별할 뿐더러 투자자를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 실패자로 바라본 결과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회사채 피해자의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는 CP·전자단기사채 피해자와 달리 투자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상비율 가산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금감원의 설명에 반박했다.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에서 고객의 투자성향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피해자 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양 측의 '사기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투자 실적'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유리하다"

협의회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감원 측은 소송보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의 사기발행·판매 관련 재판의 1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상고로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분쟁 조정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물론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피해자가 1심 판결만으로 소송을 신청하면 분쟁 조정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분쟁조정은 금융기관의 합정근저당 계약 범위를 법원보다 좀게 해석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금융분쟁 조정 사건에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하게 결정 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빈소로 향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고 정몽헌 회장 11주기 추모식을 위해 4일 오전 입국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동작선영묘를 인사무소에 도착, 출국 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끄러운 세계 1위' 남녀 임금차 37.4%

대한민국이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새로 남겼다.

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수치가 집계된 2012년 기준으로 11개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37.4%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100일 때 여성 근로자 임금은 그보다 37.4% 낮은 62.6에 그친다는 이야기다.

한국 다음으로 격차가 큰 일본도 26.5%에 불과했다. 미국(19.1%), 캐나다(18.8%), 영국(17.8%), 슬로바키아(16%), 체코(15.1%), 호주(13.8%), 헝가리(11.3%), 노르웨이(6.4%), 뉴질랜드(6.2%) 순이다.

문제는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수치가 시간이 갈수록 OECD 평균과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OECD 평균이 2000년 19.2%에서 2011년 14.8%로 4.4%포인트 줄어드는 동안 한국은 40.4%에서 37.5%로 2.9%포인트 줄어 OECD 평균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13년째 부동의 1위다. /카르멜기자 kim.re@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5만7000명

지난해보다 10% 늘어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4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06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9%(5152명)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10만5885명)는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속됐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4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290명(11.4%)이 줄고, 프리워크아웃(7825명) 신청자는 3381명(30.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자도 2만7558명으로 1066명(3.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5.3%로 높아졌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의 기본적인 배경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데 있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지난해 말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고서 올해 3월 말 현재 10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권은 최근 입법예고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어느 정도는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기자 hjk@

불공정 주문 '실시간 경고'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이번주부터 주식시장에서 불건전 소지가 있는 주문이 포착되면 즉각적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경고성 메시지가 날아간다.

현행 '예방조치' 발동 이전에 불건전거래 가능성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칙에 따르면 이른바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시세 관여나 가장매매 등 거래 불건전거래 징후가 있는 주문이 감시망에 걸려들 경우 거래소가 즉각 증권사를 통해 해당 계좌의 투자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장중에 사실상 실시간 대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장 마감 후에 주로 이뤄지던 현행 예방조치와는 차별화된다. 사전 계도 성격이 강하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실시간 안내 메시지는 증권사를 거쳐 해당 투자자가 주문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에 팝업창 형태로 띄우거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SMS)로 전달된다.

이 메시지에는 해당 주문이 불건전한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청호 거래소 예방감시부장은 "불건전 주문의 조기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현행 '예방조치'의 사전단계로서 계도 차원"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시행 초기에는 시세 관여와 가장 매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제도 정착 과정을 봐가며 다른 유형의 불건전 매매로 적용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건전 주문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1만1870건이었으며, 이 중 유선경고가 66%로 대부분이었으나 거래가 중지되는 수탁거부까지 이른 건수도 13%에 달했다.

/김현정기자

선물시장이 현물시장 흔든다?

코스피 '왝더독' 현상 완연…외국인 수급에 좌우

국내 주식시장에서 선물시장이 현물(코스피)시장을 주도하는 '왝더독' 현상이 완연해졌다. 특히 외국인의 영향력이 현물시장을 넘어 선물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증시를 어쩔 가능성이 더 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52.8%로 절반을 넘어섰다.

프로그램 매매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형태로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다. 외국인들은 바스켓 등을 통해 한 주식시장에 대해 한꺼번에 주문을 내는 비차익거래를 주로 한다.

최근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코스피에도 외국인들의 비차익거래가 대거 몰렸다.

그런데 지난 주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거래가 활발해지자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국내 증권·보험사 등 금융투자가 새로운 수급 주체로 떠올랐다.

금융투자는 지난 달 중순까지만 해도 특별한 매매 동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지난 주 들어 839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들의 매매로 선물 가격이 비싸지면서 선·현물 시장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자 금융투자 매수가 유입됐다"며 "기존 현물시장에서 주된 영향력을 끼치던 외국인이 선물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스피지수는 최근 잠잠해진 펀드 환매 행렬과 더불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최근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지난 30일엔 종가 기준 2080선을 돌파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선·현물시장의 방향성이 모두 외국인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중국은 물론, 그동안 소외됐던 한국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의 선물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옵션 만기에 근접해 물량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주를 기점으로 미국 증시의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므로 이번 주 다시 플러스를 회복하지 않으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며 "다만 추세적으로 외국인의 영향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모바일 지갑 '시럽' 쓰세요 SK플래닛은 판교의 고급 쇼핑거리 '아브뉴프랑'에 스마트 스팟 존을 구축해 다음달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다음달까지 운영된다. 모바일 지갑 '시럽' 이용자는 아브뉴프랑 방문 시 자동 푸시 알림 기능을 통해 매장 정보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SK플래닛 제공

'내 손 안의 은행' 나왔다

우리은행 '뉴 원터치 스마트뱅킹' 오픈

한번의 '터치'만으로 조회와 이체 등 은행 거래부터 대출 상품 가입, 통장 사용까지 가능한 스마트 뱅킹이 나왔다.

우리은행은 4일 기존 스마트뱅킹을 보완하고 한 단계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NEW) 원터치 스마트뱅킹'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나온 '뉴 원터치 스마트뱅킹'은 은행권 앱 중 가장 적은 용량으로 설치와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또 계좌 화면을 조회·이체·출금 등 가장 많이 쓰는 뱅킹거래와 예금·펀드·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금융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또한 기존 70여개에서 1000여 개까지 늘리면서 상품검색은 오히려 간편하게 만들었다.

또한 모바일 웹접근성을 준수해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사랑나눔터' 서비스도 추가했다.

이밖에도 스마트뱅킹 초보자들을 위해 자동따라하기에서 송금까지 단계별로 화면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이체' 기능과 피싱사이트에서는 표시가 안되는 인터넷뱅킹과 연동된 나만의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2중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했다.

/박지원기자

대학 등록금 유치경쟁 뜨겁다

금융권, 학자금·장학금 지원 잇따라

9월 시작되는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한창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는 대학 등록금 납부를 앞둔 고객에게 장학금과 경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미래 잠재고객인 대학생을 유치하는 한편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예치해 수익도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NH농협은행은 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 철을 맞아 모두 650만원의 장학금과 푸짐한 경품을 주는 '대학 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31일까지 대학(대학원 포함)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전산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200만원, 2등 2명에 각 100만원, 3등 5명에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부산은행은 9월 말까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캐시백을 해주는 한편 100명의 학생을 추첨해 당첨학생의 부모님에게 롯데호텔 부페 초대권 2매를 경품으로 증정키로 했다.

대구은행 역시 9월30일까지 대구은행 영업점 창구와 전자금융, 자동화기기, BC카드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

반면 할부 수수료를 깎아 주는 행사도 있다.

9월 말까지 KB국민카드로 올해 2학기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등 26개 대학에서 등록금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할 경우 2회차부터 자동적으로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학등록금을 KB국민카드(KB국민 체크카드, 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선불카드, KB국민 비씨카드 제외)로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증정 이벤트도 연다.

KB국민카드는 9월 말까지 납부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장학금 30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a live2020@

자산 1조 넘는 슈퍼갑부 35명

상장·비상장 대주주 평균 4590억…1위 이건희, 2위 정몽구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기업을 일궈 1조원이 넘는 부를 쌓은 '자수성가형 부자'는 10명이다. 또 이들을 포함해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슈퍼갑부'는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4일 재벌닷컴이 1883개 상장사와 자산 100억원 이상 비상장사 2만1280개사의 대주주와 경영자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개인자산을 평가한 결과 1600억원 이상 자산가는 400명이었다. 이들이 가진 총자산은 183조9290억원이고 1인당 평균 보유 자산은 4590억원이었다.

◆슈퍼부자 상위 10명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지분 가치와 서울 한남동 자택 등 본인 명의 부동산을 합쳐 모두 13조2870억원의 자산을 보유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쳐 개인 자산이 7조6440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회장과 격차는 5조6430억원에 이른다.

3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삼성전자와 상장을 앞둔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등 비상장사 주식 지분가치와 한남동 자택 등 개인 명의 부동산을 합해 모두 5조1790억원의 개인 자산을 보유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등 4조4620억원의 자산으로 4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아모레퍼시픽 주가 급등으로 자산이 4조3400억원으로 5위에 올랐다.

6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3조500억원), 7위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2조2370억원), 8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조1920억원), 9위 이재현 CJ그룹 회장(2조1560억원), 10위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1조9690억원) 등이다.

개인자산이 1조원을 넘는 35명 중 스스로 기업을 일궈 부를 쌓은 자수성가형 부자는 16명(25.6%)이었다.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비상장사 주식과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을 합쳐 개인 자산이 1조8100억원으로 자수성가형 부자 중 1위를 차지했다.

'넥슨 신화'의 주인공 김정주 NXC 회장은 개인 자산이 1조4720억원으로 신흥 벤처부호 중 1위였다. 이어 네이버의 최대주주인 이해진 이사회의장(1조3460억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1조2140억원)이 뒤를 이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며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이 1조1580억원, 네이버 창업동지인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은 1조350억원의 자산을 보유했다.

◆샐러리맨 출신 등 눈길

올해 400대 부자에 오른 인물 중에는 눈길을 끄는 이들도 많았다.

학습지 '눈높이' 신화를 이룬 주인공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8680억원(41위), 1970년대 재계의 무서운 아이들로 불린 율산그룹 창업자 신선호 센트럴시티 회장이 7720억원(46위), 자동차 부품업계의 강자 이상일 일진베어링 회장이 7180억원(47위)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저가 의류브랜드로 성공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이 5600억원(61위), 게임프로그램 개발로 성공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이 5490억원(64위), 샐러리맨 신화로 불리는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은 4780억원으로 74위에 올랐다.

삼성그룹 출신들도 눈에 띈다. 삼성의 전문경영인(CEO) 출신인 이학수 전 부회장은 5210억원으로 64위에 올랐고,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2760억원 158위),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1890억원 323위)도 400대 부자에 포함됐다.

400대 부자 중 최연소는 이정훈 서울반도체 회장의 딸 민규 씨로 올해 28세의 나이에 2200억원(268위)을 기록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3720억원 105위)과 윤장섭 성보화학 명예회장(1880억원 323위)은 올해 92세로 최고령이다.

/김태균기자 ksd1@metroseoul.co.kr

"휴가철 특수를 노려라"

완성차업계, 다양한 판촉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다양한 판매조건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7월과 비교해 엑센트와 i40의 할인 혜택이 커졌다. 엑센트는 4.5% 저금리만 적용됐으나 이달에는 3.5% 저금리 또는 20만원 할인을 해주며 i40는 할인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그 외에 아반떼는 30만원, 벨로스터는 20만원, i30는 50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250만원 깎아준다. 쏘나타, 그랜저 등 나머지 차종은 할인 혜택이 없다.

이달에 새로 추가된 할인조건 중에는 '노후차 보유 고객 할인'이 눈에 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아반떼를 구입할 경우 50만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경차 보유 고객이 엑센트를 구매할 경우 30만원을 할인해주는 조건도 추가됐다.

기아자동차는 8월 중 K3, K5, K7 등 K시리즈 3개 차종을 출고하는 고객에게 △차량 저금리 할부 △주유비 지급 △최신 스마트폰 구매 지원 △아웃도어 제품 구매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K LIFE(케이-라이프) 패키지 프로그램' 판촉 행사를 실시한다.

우선 8월 중 K3, K5, K7을 출고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신 스마트폰 특별 구매 지원금과 통신비 20만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NEPA)' 제품 구매 할인권을 준다. 이와 별도로 K5 고객에게는 △가솔린·하이브리드 모델 1.4%, LPI 모델 2.9~4.9%의 저금리 할부 혜택 및 △가솔린 100만원, 하이브리드 250만 원, LPI 50만 원의 주유비를 준다. K3 고객에게도 △2.9~4.9%의 저금리 할부 혜택 △50만 원의 주유비가 제공된다.

기아차는 K5 가솔린 모델 고객에게 삼성전자의 UHD TV 또는 차량 할인 혜택을 주는 '월드베스트 특별 구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르노삼성은 인기 옵션을 묶어 최대 89%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머 스페셜 컬렉션'을 8월에도 지속한다. '서머 스페셜 컬렉션'은 SM5와 SM7 차종에 리어 글라스와 뒷좌석 윈도우 선블라인드, 뒷좌석 독립 풀 오토 에어컨, 보스 사운드 시스템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묶어 최대 89%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이다.

르노삼성은 이와 함께 8월 한 달간 SM3 현금 구매 고객에게 LED 룸 램프 풀세트를, QM5 현금 구매 고객에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공한다.

한국GM은 8월 한 달 동안 차종 별로 최대 100만원의 여름 휴가비를 지원한다. 차종과 생산시점 별로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쌍용차는 렉스턴 W 출고 후 2000km 및 1개월 이내 주행 중 품질 불만족 시 새차로 교환해주는 '렉스턴 품질 자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정혜인기자 [illegible]

국내 완성차업계가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판촉 조건을 내걸었다.

국제전화비 할인 '001 중소기업요금제' KT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국제전화 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001 중소기업요금제'를 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국제전화 중소기업요금제 가입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올레닷컴(event.olleh.com)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KT제공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내달 24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13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기업전시회에 참가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 우수기업 및 신제품 개발 기업은 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전시회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며 국내 기업인과 재외동포 경제인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회 참가기업은 행사기간 중 한상 바이어는 물론 국내 유통 MD 및 벤더, 수출 에이전트 등 다양한 바이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구매상담회 모습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500여 기관 및 업체에서 참가하며 600여 개의 부스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특별관 ▲수출우수기업관 ▲부산 특별산업관 ▲의상특별관 외에 생활용품·일반/신감·식품·뷰티/이미용·에디랩·IT+전기/전자·특허·아이디어 제품 등 다양한 테마별 전시관이 운영된다. /김태균기자

SK텔레콤 '통신 1등' 저력은 이어진다

단통법 시행 호재… 배당금도 경쟁사 앞서

더 위너 테이크 잇 올(The Winner Takes it All). 1등의 저력이 통신업계에서 또 다시 증명되고 있다.

4일 시장의 눈은 이통통신사 중 가장 양호한 성적을 발표한 SK텔레콤에 쏠리고 있다.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는 5:3:2의 고착된 점유율이 곧 시행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롱텀에볼루션(LTE) 이용자 증가 등에 힘입어 SK텔레콤의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원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보수적인 기조가 SK텔레콤 이동전화 시장점유율(M/S) 수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말기 보조금 제한을 골자로 한 10월 단통법 시행이 SK텔레콤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무차별적 보조금 살포로 대변되는 가입자 유치 경쟁 대신 상품과 서비스의 본원적인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가입자 유지에 쓰이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가입자당 보조비용의 감소보다는 캐파(판매량)의 감소에 따라 모집수수료가 감소하면서 마케팅 비용의 하향 안정화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상품·서비스 경쟁에서 SK텔레콤의 가입자 수가 그 무엇보다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2명 중 1명이 SK텔레콤 고객인 상황에서 가입자간 무료 통화는 고객에게 낮은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착한 가족할인 결합, 출퇴근·지하철 프리 등으로 구성된 'TPO(시간, 장소, 상황)별 데이터 무제한 옵션 상품' 등도 마찬가지다. 데이터 무제한 로밍 상품의 가격이 이통3사 중 가장 저렴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선방은 이통 3사의 배당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배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회사가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예금자가 받는 이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자와 달리 손실이 발생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가치 제고의 선두주자 역시 SK텔레콤이다. 수년째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주당 9400원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KT는 2012년 "향후 3년 간 주당 2000원 이상의 배당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2013년도 회계에서 순손실이 발생해 배당금을 60% 낮춘 주당 800원으로 변경한 이유로 올 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올해 배당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LG유플러스는 보통주 1주당 2010년 350원, 2012년 무배당, 2013년 150원을 배당한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2분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기준 영업이익 5461억원, 순이익 4985억원을 달성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 980억원(-32% YoY, 13% QoQ), 순이익 336억원(59% YoY, +25% QoQ), KT는 영업손실 8130억원(적전 YoY, 적전QoQ), 순이익 -7572억원(적전 YoY, 적지 QoQ)을 기록했다.

/서승희기자 sh!@metroseoul.co.kr

카페베네 과징금 19억원

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세종=유주영기자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월 3000대 돌파 서울 강남구 청담동 LG베스트샵 강남본점 매장에서 모델이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이 냉장고가 지난달 월간 판매량 3000대를 넘었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 제공

"방통위, 국민 위한다더니…"

지상파 편들기 '논란'… 유료방송업계 '반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임기 3년간 추진할 7대 정책과제를 4일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상파 혜택 가중화에 쏠려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성준(사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3기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7대 정책과제에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 도입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엄중 제재·인터넷 상 주민번호 파기 ▲재난방송 문제점 개선 ▲남북 방송 협력 및 해외진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업계의 최대 관심은 지상파의 광고 총량제 도입에 쏠렸다. 방통위는 한류 기반인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방통위가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시보광고 20초 등 총 10분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 횟수, 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를 통해 지상파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경우 오래전부터 허용해 온 제도"라며 "다만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더라도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차별화된 기준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방통위가 지상파 편향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PP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가 지상파 광고총량제 실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 지상파 편향적인 규제 완화 내용만을 담았다"며 "정부가 매체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는 초고화질(UHD)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를 2015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정책 모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와의 갈등 속에 논란이 된 사안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도 지상파 혜택만을 가중시킬 안건들을 포함시키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재영기자

KT '정보보안단' 신설

단장에 신수정 전 인포섹 대표 영입

KT는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단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정보보안단은 KT 정보보안 정책과 체계를 마련하는 조직으로 기존 정보보호 담당에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KT는 이와 함께 보안 전문가인 신수정 전 인포섹 대표를 정보보안단장(전무)으로 영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KT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직급을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격상했다.

신수정 단장은 국내 보안 컨설팅 태동기부터 활약한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다. 한국HP와 삼성SDS 등 거쳐 2010년부터 인포섹을 이끌어 왔으며 정보보안 기업 경영자로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앞으로 신 단장은 KT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 선임 KT 정보보안단 전무는 "고객정보 보호가 회사 기업가치의 제1원칙임을 선언하고, 앞으로 KT에서 고객정보 보호와 정보유출 예방 관련 대책들을 반듯 없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강남 VS 비강남, 주택시장 반응 엇갈려

대출규제 완화, 6억 초과 강남 재건축 수혜 집중
강북·수도권 아파트 문의·거래 없이 아직은 잠잠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 중에 효과는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지난달 24일 대책 발표되고 1일부터 LTV·DTI 비율 조정되면서 하루 종일 벨이 울릴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와요. 집주인들은 지금 안 팔겠다고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3000만~4000만원씩 가격을 올리고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E부동산 대표)

"글쎄요. 언론에서는 좋아진다고 떠드는데 강남이 아니어서 그런지 전혀 아무 반응 없어요. 보통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면 1년 정도 지나야 수도권까지 온기가 확산되는데 그 전에 서울쪽도 분위기가 식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러고 말겠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 양주시 M부동산 대표)

4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가 완화되고 첫 주말이 지났지만 지역별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회복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간간이 문의가 있었지만 수도권 외곽은 휴가철과 맞물려 개점휴업 상태를 연출했다.

이 같은 시장의 반응은 이번 LTV·DTI 비율 완화에 따른 수혜가 수도권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6억원 초과 주택은 지금까지 지역·금액 제한에 따라 LTV가 50%밖에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돈을 빌릴 수가 있다.

문제는 집중 수혜가 예상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의 대부분이 강남3구에 밀집됐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42만4526가구다. 이 가운데 강남구 8만137가구, 송파구 6만2396가구, 서초구 5만7171가구 등 절반에 가까운 47.0%가 몰려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그동안 건들이지 않았던 대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시장 회복 시그널을 줬고, 수요자들도 즉각 반응을 보이는 양상"이라며 "특히 강남 재건축, 한전부지와 가까운 잠실 아파트, 위례신도시 등 소위 될 만한 지역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권으로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외 지역은 소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남권과 멀어질수록 수요자들의 반응도 약했다. 휴가시즌과 맞물린 이유가 가장 크지만 실물경기 호전 없이 대출을 받아 덜컥 아파트를 사기에는 수요자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풀렸다면 시너지 효과가 컸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구매력 있는 유효수요라도 섣불리 주택을 구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경기회복 없이 부동산시장 회복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회복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집값 상승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에 수요자들 사이에서 어차피면 가격이 오를 곳에 집을 사자는 인식이 확산되며 강남권으로는 돈이 몰리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관망만 하는 현상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선옥기자

아파트 '명품마감재' 부활하나

가격부담 적고 실속형 눈길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금융위기 이후 자취를 감췄던 고급 마감재가 최근 들어 다시 등장하는 추세다. 분양시장 회복과 함께 고급주택이 속속 공급되면서 덩달아 명품 마감재도 인기를 끄는 것이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보다 실용적이고 가격 낮은 실속형 고급 마감재가 사용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서울 용산구 용산역전면2구역을 재개발한 '용산 푸르지오 써밋'에 최고급 마감재를 적용했다.

우선 현관과 거실아트월은 천연대리석으로 마감했으며 거실·주방 바닥도 대리석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부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에는 독일산 명품 주방가구인 노빌리아를 설치했고, 수전은 독일 그로헤 제품을 사용했다. 또 욕실 전체에 대리석 상판을, 부부욕실에는 수입 타일과 월풀 욕조를 시공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외국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다 용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설계된 만큼 글로벌 최고 수준의 마감을 적용했다"며 "그러면서도 기존 고급아파트와 비교해서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강남구 청담동의 '동양파라곤 2차'는 부촌에 지어진 최고급 아파트인 만큼 인테리어 마감재와 빌트인 가구를 모두 해외 유명제품으로 썼다. 주방가전과 싱크대는 독일 '잠코'와 '보일러'는 미국, 가구는 이탈리아 제품으로 채웠다. 마감재는 친환경 페인트와 천연 무늬목을 적용했다.

두산중공업이 서울숲 일대에 분양한 '트리마제'는 일부 세대 내 이탈리아 수입산 주방가구를 적용했다. 특히 전용면적 216㎡ 펜트하우스에는 50년 전통의 이탈리아 최고급 브랜드 '돈젤라'의 주방가구를 도입해 고품스러운 멋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거실, 주방, 복도에 천연석을 기본 마감으로 했다.

/박선옥기자

대리석이 적용된 '용산 푸르지오 써밋' 펜트하우스 거실 아트월 및 바닥

'승용마 경매' 현장 4일 경기 고양 한화승마클럽에서 경매사가 승용마 경매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귀주마위주의 국내 말 경매 시장에서 시도하는 최초의 승용마 경매다. /연합뉴스

해외건설 시장개척 자금 12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4일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시장개척자금 약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에서 84개 건설업체에 약 35억원(74건)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업체들의 추가지원 요청에 따라 하반기 2차 지원을 추진한다.

시장개척자금은 중소·중견 건설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사업 수주를 위해 벌이는 ▲타당성 조사 ▲현지 수주 교섭 ▲발주처 인사 초청 비용 같은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674건(498개 업체)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 지원금액 대비 약 202배의 수주성과(45억4000만 달러)를 거뒀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타당성 조사는 3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 비용의 90% 이내 ▲중견기업은 80% ▲대기업·공기업(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진출 때)은 30%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두탁기자 kdt@

스피커 만난 스탠드 시너지 극대화

꼼꼼IT리뷰

• 브리츠 LED 스탠드 BE-L10

거실이나 안방에 흔히 두는 스탠드

은은한 조명으로 분위기를 살리거나 밝은 램프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왔던 기기

그런데 스탠드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오디오 브랜드 브리츠가 깜찍하고 귀여운 학습용 LED스탠드 BE-L10 제품을 선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일체형 2채널 멀티 스피커를 내장해 PC는 물론 스마트폰과 연결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잠들기 전 책을 볼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담긴 영화를 침대에 누워 감상할 때 제격이다

스피커 본연의 기능에 맞게 두개의 풀레인지 유닛이 탑재돼 전 영역에서 강력한 사운드를 발휘한다

USB입력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오디오기기와 연결하지 않고도 USB에 담겨있는 MP3 음원을 재생할 수 있다

LED램프는 접이식인 만큼 공간활용성이 뛰어나다 게다가 3단계 밝기로 조절이 가능해 사무 학습 PC 작업 무드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스탠드와 스피커를 합치고 보니 의외의 시너지가 발생한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어둠을 밝힌 채 수필집을 읽으니 이 기기가 신선한 음 메이커로 다가온다

리뷰 제품만의 문제일 수 있으나 220V 전원 코드가 헐거워 접속이 불안정한 것은 옥에 티다 5만원대 /박상훈기자

"나도 셀카봉 장만해볼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을 수 있도록 돕는 '셀카봉'이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4일 현대아이파크몰은 전했다 셀카봉은 휴대전화디카메라를 길게 늘어나는 막대기 끝에 적달아 다양한 각도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도구이다 /현대아이파크몰 제공

터치만 하면 앨범이 뚝딱

이스트소프트 '알씨앨범' 베타버전 출시

터치 몇 번 만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앨범 제작 앱인 '알씨앨범'의 베타버전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알씨앨범을 이용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13가지의 다양한 앨범 테마를 활용해 여행 일상 육아 등 사진의 콘셉트에 맞는 앨범을 만들 수 있다 알툴즈 캐릭터 등 앨범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도 제공된다

사진과 관련해 간단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메모 기능을 비롯해 사진보정 필터 'SNS 공유' 기능도 있다 /이국현기자

프로야구 덕에 쑥쑥 크는 보안업체

프로야구 마니아 박경민(34) 씨는 거의 매일 케이블채널에서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SBS ESPN의 '베이스볼S'를 보던 중 ADT 캡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딱딱한 보안 전문업체로 여겼지만 어느덧 디테일에 강한 꼼꼼한 IT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끝날 무렵 그날 가장 뛰어난 수비를 보여준 선수를 선정하는 'ADT캡스 플레이' 코너를 자주 접하면서다

다이빙캐치나 흐린성 타구를 잡아내는 장면에 ADT 캡스 로고와 동시에 뜨기 때문에 '물 샐 틈없는 보안 감시 능력'이 저절로 그려진다는 평가다

4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ADT캡스는 '보안전문업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고객에게 친밀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야구 골프 등의 분야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다

먼저 ADT캡스는 KLPGA투어 대회인 ADT캡스 챔피언십을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KLPGA 투어 중 네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초대 챔피언인 김나연을 비롯해 2009년 서희경, 2010년 편애리, 2011년 조영란, 2012년 양제윤 등 국내 내로라하는 골프 여제들이 이 대회를 거쳤다

최근 ADT캡스는 '핸디캡 No 1을 지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ADT캡스 세이브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매 대회 가장 어려운 홀을 선정하고 해당 홀에서의 스코어를 누적 집계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상을 주는 행사다

KBO 공식 후원사인 ADT캡스는 2007년부터 SBS ESPN과 함께 프로야구 시즌 동안 호수비를 응원하는 ADT캡스플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의 ADT캡스플레이 영상 확인과 투표는 ADT캡스 플레이 페이지(www.adtcapsplay.co.kr)에서 할 수 있다

업계 라이벌인 에스원도 지난 3월 기아 타이거즈와 손잡았다

수비요정 뽑는 ADT캡스 플레이 광주 챔피언스필드 지키는 에스원

ADT캡스가 개최하는 KLPGA ADT캡스 챔피언십

3년간 기아 홈구장인 챔피언스필드에 자동제세동기(AED) 12대를 설치·관리하고 전 임직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교육할 예정이다

에스원이 구단과 구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안 기아 구단은 전광판 동영상 광고 홈페이지 노출 등으로 에스원을 지원한다

에스원 역시 위급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임을 야구장에서 과시하는 셈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업무 특성 때문에 스포츠마케팅 효과 덕을 보고 있다 이전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괄목하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사물인터넷 전문가 돼볼까?

미르헨지 무료교육 과정

최근 IT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T교육업체인 미르헨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함께 사물인터넷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개발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반역량부터 고급 기술 분야까지 6개월 동안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전문 인력에 필요한 기업과 채용 협약을 맺고 진행해 교육 이수 후 바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비 교재비는 전액 무료 1인당 최대 68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8일까지 미르헨지 교육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홈페이지(www.mirhenge.com)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국현기자 lmlee@

'프로바이오틱스' 매력에 빠진 식·음료업계

최근 전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섭취한 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해 인체에 좋은 효과를 주는 유익균을 의미한다.

이 균은 젖산을 생성해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든다. 산성 환경에서 견디지 못하는 유해균들은 그 수가 감소하게 되고 산성에서 생육이 잘 되는 유익균들은 더욱 증식하게 돼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 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아토피를 앓거나 장 기능이 약한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온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된다.

/정영일기자 pmss@metroseoul.co.kr

자별화된 균주, 한국인 최적화, 주가 성분 함유로 고객잡기 나서

한국야쿠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 플랜트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해당 제품 출시가 붐물을 이루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발표한 '2012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2012년 기준으로 518억원에 달한다. 전체 건강기능식품 규모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전년보다 27.9%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전년보다 35% 신장된 69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야쿠르트 분말형 공장 신설

과거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발효유를 중심으로 비발효유 제품(분말 제품 등)이 일부 시장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비발효유 제품, 특히 분말형 제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목마른 관련 업체들에게도 주요 관심 상품이 됐다.

실제로 한국야쿠르트가 지난달 21일 평택에 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다목적 프로바이오틱스 플랜트를 완공했다.

새로 완공된 이 시설은 한국야쿠르트에서 직접 선발·개발한 유산균 원료를 자체 플랜트에서 생산하고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국내 최초의 일괄적 프로바이오틱스 통합 생산 시스템으로 연간 액상농축 유산균은 6만400ℓ, 분말 유산균은 최대 15톤 규모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특허 받은 균주로 차별화 나서

유산균은 ▲장 도달력 ▲장내 부착력 ▲유익균 성장 촉진 능력 ▲균수 보존력 등 균주에 따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

관련 업체는 날로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균주의 차별화 전략으로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세노비스는 스웨덴 유산균 전문사 '프로비'에서 특허 받은 프리미엄 단일 품종 유산균 'Lp299v(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299v)'를 100억 마리 함유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하고 균주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유산균은 장벽에 붙어 유해균이 장내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내 세포는 보통 장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Lp299v는 젖산·아세트산 등과 같은 짧은 지방산을 생성해 장내 점액 분비를 활성화하면서 장을 더 유연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덴마크 유산균 기업 크리스찬 한센 사의 특허 받은 유산균 'BB-12'를 사용한 제품도 눈에 띈다. 이 균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온도와 습도 변화에 대한 강한 적응력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영유아용 건강식품 브랜드 '잘크톤'에서는 이 유산균과 핀란드의 유제품 기업 '발리오'에서 독점 생산하는 'LGG 복합 프로바이오틱'을 더한 '잘크톤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보였다. 생존율이 뛰어난 두 가지 유익균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조아제약의 '프로바이오틱 드롭스'도 BB-12를 사용했으며 액상형으로 캡슐이나 정제 섭취가 힘든 신생아도 간편하게 복용하도록 했다.

◆한국인에게 적합한 유산균

CJ제일제당은 식약처로부터 피부 가려움 개선에 대해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피부유산균 CJLP-133'을 내놨다. 이 제품은 수백여 개의 김치에서 분리한 3500개 유산균 가운데 133번째 균에서 피부 가려움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인증해 탄생한 김치유산균이다.

벨바이오텍도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장의 길이가 30cm 정도 길다는 것에 착안해 김치 유산균을 함유한 '듀오락 지사랑'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3종의 락토바실러스균과 1종의 엔테로코쿠스균, 김치에서 추출한 '페디오코쿠스 펜토사세우스균'을 분말 형태로 만들었다. 또 항염·항균 작용을 하는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유산균도 함께 넣어 면역 질환의 일종인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LG생명과학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리튠은 '리튠 프로바이오틱스 듀얼'을 선보였다. 한국인에게 적합한 10여 종의 복합 유산균을 배합한 캡슐 유산균을 사용했으며 장용성 코팅을 적용해 유익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전문회사인 나우·푸·산은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VSL#3'에 주목했다. 4500억 마리의 살아있는 8가지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유산균에 유익 성분 첨가

대상 건강사업본부 대상웰라이프는 유산균과 아연을 함유한 복합 기능성 제품인 '루테리프로바이오틱스아연'을 선보였다. 장내 생존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모유내 유산균 루테리에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유산균까지 함께 함유해 기존 유산균 규격의 2배인 2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에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까지 함유시켰다.

남양유업에서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 1000억 마리 들어있는 신제품 '프로바이오틱(Probiotic)1000억'을 선보였다. 최상급 1A 등급 원유를 사용하고 몸에 좋은 멀티비타민 12종과 식이섬유 1500㎎(150㎖ 기준)을 함유하고 있다. 지방함량이 1.2%로 적고 사과와 포도농축 과즙으로 맛을 더욱 높였다.

한국야쿠르트의 어린이 전용 발효유 '세븐키즈(7even-Kids)'는 갓 태어난 아기의 장에서 선발한 7가지 700억 프로바이오틱스로 무장하고 있으며 초유분말과 자일리톨 함유로 면역력 증진·치아건강을 돕는 기능성 측면을 강화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의 발효유로 전문 브랜드인 풀무원프로바이오는 식물성 오메가3가 담긴 유산균음료 '식물성 유산균 치아씨드'를 지난 4월 내놨다. 치아씨드는 고대 마야인들의 주식으로 즐겨 먹던 민트 계통 식물인 '치아(Chia)'의 씨앗으로 오메가3의 함량이 연어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오메가3와 함께 식이섬유·단백질·항산화·물질이 풍부해 자체대 슈퍼 푸드로 각광 받고 있으며, 물에 담그면 10배로 부풀어 올라 말랑한 식감과 함께 포만감이 높다고 한다.

풀무원 자연의 친환경식품 전문 유통기업 올가홀푸드도 아연을 함유한 이중 복합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인 '올비타 혼합유산균 쾌락'을 선보였다. 4종의 유산균과 4종의 비피더스균 총 10억 마리를 함유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연알디가 내 논 '닥터S 유산균17'은 티베트버섯이라 불리는 케피어 유산균과 함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19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중 기능성이 우수한 17종을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면역과 항노화에 도움을 주는 셀렌과 아연 성분까지 추가했다.

반복되는 위장병, 위 점막이 문제!

제산·건위·소화 등과 함께 회복 돕는 종합 위장약 먹어야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은 위장 질환에 취약하다. 위궤양이나 위암처럼 다소 심각한 질환이 많고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위암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41명의 환자가 발생해 세계 1위의 발병률을 자랑하고 있다.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이런 위장병의 원인은 다양하나 하지만 정작 문제는 '반복되는 위장병'이 많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정도가 위장 관련 증상의 재발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위장병이 반복되는 이유는 훼손된 위 점막 때문이다. 위 점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병의 여러 원인에 또 다시 노출돼 질환이 완치되지 않으며 증상도 재발한다. 더욱이 이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면 위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더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장병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위 점막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 소화 효소제 등과 같이 증상에 따라 복용하던 약 대신 한국코와의 '카베진코와S정'과 같이 위 점막을 수복하는 데 초점을 둔 종합 위장약을 복용해야 한다. 종합 위장약은 제산·건위·소화 등 증상에 따른 위장약의 효능을 가지면서도 위 점막 회복에 효과적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시원한 바람이 솔솔… "열대야 몰라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가구업체들이 여름에 쓰기 좋은 침구와 매트리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 제품 속 습도를 조절해 쾌적한 수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근 출시된 제품들의 특징이다.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템퍼는 신제품 '템퍼 오리지날 브리즈 매트리스'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상단 매트리스 층은 개방형 셀로 구성된 TCM(TEMPUR Climate Material) 기술로 공기 흐름을 개선해 통기성을 강화함으로 신체 주위의 습도를 최적화 해주는 매트리스다. 또 신체에 접촉되는 커버는 특수 3D커버로 습기를 몸으로부터 쉽게 방출되도록 도와 수면 시 신체 주위의 습도를 조절한다. 뮌헨 인간공학연구소에서 매트리스의 상대습도 개선 효과에 관한 실험 결과 해외 브랜드 제품보다 우수한 상대습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체리쉬도 최근 100% 라마 소재의 산토리니(Santorini)를 비롯해 표면에 주름을 만들어 몸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 시원함을 강조한 라미 리넨 소재 100%의 리베로(Libero)와 타히티(Tahiti) 등 3종의 침구를 새롭게 출시했다. 기존 라비 소재가 주는 거친 느낌을 보완해 시원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강화했다. 또 통기성에 강점인 3D 미스트랄(3D Mistral) 신소재 원단을 적용한 '브리더블 3D 미스트랄' 메모리 플레티늄'도 함께 선보였다. 3cm 두께의 3D 미스트랄 공간을 통해 원활한 내부 공기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폼 매트리스 특유의 체온이 축적되는 단점을 보완했다.

지난 6월 에이스침대가 출시한 매트리스 보호커버 '스마트 슬리브'는 특허 받은 3D 입체 직물 구조로 제작돼 통기성과 수분흡광 조절력으로 매트리스 내 유해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특히 기존의 방수 제품들은 통기성이 좋지 않아 자면서 쉽게 땀이 차는 반면 스마트 슬리브는 직물구조에 X자 연결고리 중간층을 적용, 통기성을 강화해 방수와 쾌적한 수면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 동풍·알레르기방지·체온유지·향수·긴장완화·모기퇴치 등 6가지 수면문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세복만 기자 [email]

"예비 신랑·신부 잡아라"

웨딩의 계절 앞두고 그릇·수트 제품 경쟁

웨딩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올가을에는 윤달(양력 10월 24일~11월 21일)이 끼어 있어 이를 피해 결혼하려는 커플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업계는 다양한 제품과 마케팅을 선보이며 예비부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프랑스 주방용품 브랜드 르크루제는 4일 르크루제의 베스트셀러 제품들로 구성한 '웨딩 세트'(사진)를 선보였다.

무쇠 베이직 세트, 무쇠 에센셜 세트, 무쇠 프리미엄 세트, '스톤웨어 스위트 세트', 스톤웨어 리필 세트 등 총 8가지 타입이 있다. 예비 신부의 취향대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드 셀렉션도 가능하다.

대물림이 가능할 정도로 단단한 무쇠 제품 라인은 냄비와 그릴 스티머 등 대표 제품 라인으로 기획됐다.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표면에 코팅처리가 된 TNS라인으로 구성된 'TNS세트'는 경쾌한 실버 색상으로 모던한 주방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ON은 예비 신랑을 위해 품격 있는 '웨딩수트'를 내놨다.

BON의 웨딩수트는 클래식한 디테일링이 돋보이는 스타일로 예식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울 100%의 최고급 이태리 레다 소재를 활용해 촉감이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삼성전자 웨딩 마일리지'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삼성전자 웨딩 마일리지'는 행사에 참여한 고객에게 3개월간 삼성 디지털프라자 혼수전문점에서 구매한 제품 금액과 삼성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0만원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박지원 기자 [email]

잠이 보약 — 수험생 맞춤 수면 컨설팅 이브자리가 수능을 100여 일 앞둔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브자리 코디센 대치점에서 수험생 맞춤 수면 컨설팅 서비스 행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단계별 전문컨설팅 교육과정을 이수한 '슬립 코디네이터'가 수험생 개인의 수면 타입, 체형,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개인에 최적화된 수면 솔루션을 제안한다. /이브자리 제공

주름 개선 화장품, 유세린·미샤 최고점

소시모, 12개 제품 조사

주름개선 효능을 광고하는 고가 화장품이 가격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중저가 국내 브랜드와 일반 보습크림의 효과가 눈에 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국제소비자테스트기구(ICRT) 회원 단체들과 공동으로 국내 판매중인 12개 안티링클 크림 제품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해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안티링클 효과 실험 결과 미샤와 유세린의 제품이 3.5점(최저 0.5점~최고 5.5점 6등급 분류)을 받아 ▲시간 경과에 따른 주름 개선 정도 ▲표준크림 대비 주름 개선효과 측정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제품 모두 5만~6만원 대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반면 12만원대에 판매되는 SK-II 제품은 1.5점을 받아 12개 제품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 소비자시민모임 [illegible] 중 [illegible]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12개의 소비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수분 효과 테스트에서는 상향 평준화돼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자녹스·로레알·SK-II 제품이 4.4점을 받으며 시간 경과 효과와 표준제품 대비 효과 모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자혜 소시모 회장은 "국내에서는 주름개선 효과를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하고 있다"며 "2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했을 때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기능성을 인증하지만 기존의 ICRT 테스트 사례를 종합해 본 결과 4주와 8주의 기간 상 차이에서 유의미한 결과 차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고가 화장품의 광고를 보면 1주 내지는 보름 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데 실제로는 4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심지어 안티링클 제품이 아닌 일반 보습크림을 4주 이상 발라도 주름개선에 유사한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표준제품으로 선정한 보습크림은 국내에 시판중인 제품 1개와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 1개이며 국내에서 5만원 대에 팔리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학철 기자 [email]

하나투어리스트
특가 끝판왕
싸다고 덥썩말고 예약! 딱! 꼼! 따져보고 필수!
하나투어리스트
검색창에 하나투어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많은 특가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동유럽 4개국 8일
2,144,000
▶8월 21,28일 / 9월 11,18,25일 / 10월 9일
터키완전일주 8일
1,509,200
▶9월 12,19일 / 10월 10,17,24,31일
동남아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5일
390,100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509,100 ▶8월 24,27,28,30,31일
대만(야류/지우펀/딴수이) 4일
550,000 ▶8월 30일
582,200 ▶9월 15,20,22,27,29일
중국
북경 ★ 대한항공 탑승 4일
303,300 ▶8월 19,23,30일
상해/항주/주가각 4일
283,300 ▶8월 31일 [아시아나항공 탑승]
335,100 ▶8월 21,22,27일 / 9월 1,16,19일
제남/태항산 5일
398,400 ▶8월 18일,29일
448,400 ▶8월 25일 / 9월 8일
일본
규슈여행 3일
494,600 ▶8월 20,27일
오사카 3일
552,900 ▶9월 1,3,10,14,15,17,21,22,24,28,29일
북해도(후라노/비에이) 4일
748,200 ▶8월 31일 [100% 출발확정]
759,000 ▶8월 29,30,31일
www.hanatourist.com
강남점 1600-6963
예약문의 1577-1212

장시간 정차 공기정화 신경을

배기가스 유입으로 피로

휴가철에는 막히는 도로에 장시간 정차해있다 보면 외부 배기가스가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신체·정신적 피로를 축적시킨다. 따라서 긴 시간 차에서 보낼 때는 차량 내 공기를 상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청소를 마친 후 숯을 놓아주면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숯은 탈취와 습기제거에 효과가 있어 작은 바구니에 담거나 신문지, 마른 헝겊으로 싸서 넣어두면 악취와 습기제거에 효과적이다. 공기청정 기능과 방향효과 등 함께 보고 싶다면 배기가스 성분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방향제인 아경에스티 '훕즈 에어후레쉬 클리어 포레스트'와 같은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또한 차량 내 세균과 곰팡이는 차내 공기를 오염시켜 악취를 일으키고 면역력이 약한 영 유아와 노인의 기관지 계통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시트 사이사이에 낀 과자 부스러기와 먼지는 차량용 진공청소기와 마른 수건을 이용해 닦아낸다. 매트는 신발에 묻은 각종 먼지와 이물질로 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10배 높은데 먼지를 털어주고 햇볕에 말리는 것만으로 세균을 줄일 수 있다. /정혁진기자

'건강한 휴가' 즐기려면…

비타민 등 건강식품 꾸준히 섭취해야

휴가철 건강관리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비상 시를 대비한 상비약 구비도 중요하지만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건강한 휴가를 보내고 휴가 후유증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건강식품을 소개한다.

◆면역력 유지와 혈행 개선 중요

먼저 휴가지에서의 야외활동은 체력소모가 크기 때문에 꾸준히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면역력 향상과 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비타민C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고려은단 '비타민C 1000'이 있다. 제품은 물놀이 등으로 급격한 체온 변화나 환경 변화로부터 면역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빛과 습기에 약한 비타민C를 보호하기 위해 PTP(Press Through Pack) 소포장으로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자동차나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휴가자들에게는 혈행 개선 제품이 필요하다. 항산화 효소로 잘 알려진 씨쓰팜의 건강기능식품 '콤콤팜' PME88 멜론 SOD의 주 원료인 PME88 멜론 추출물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행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제품은 혈관벽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심장세포가 죽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KGC인삼공사의 '홍삼오메가3'는 식물성 배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와 6년근 홍삼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혈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숙취해소제를 미리 챙기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다. 최근 출시된 한독의 '레디큐'는 카레의 주 원료인 울금에서 추출한 '커큐민' 성분을 원료로 하는 숙취해소제로 드링크제인 '레디큐 드링크'와 함께 젤리 형태인 '레디큐 츄'로 구성돼 휴대가 간편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바캉스 노출 패션, '반전 뒤태' 유혹

X자·홀터형 어깨끈으로 '속옷인 듯 아닌 듯' 연출

속옷업체들이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브래지어 컵부터 어깨끈까지 다양한 속옷 디자인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어깨가 드러나는 루즈티나 튜브톱 등 오픈 숄더 스타일은 대표적인 바캉스룩 아이템이다.

루즈티에는 속옷의 X자형 어깨끈이 자연스러운 섹시미를 강조할 수 있다. 레이스나 독특한 패턴이 들어간 어깨끈을 매치하면 조금 더 도발적인 분위기가 완성된다.

튜브톱에는 홀터형 어깨끈 브라를 착용해 비키니를 입은 듯한 발랄한 분위기 연출에 도움이 된다.

휴가지에서는 평소 입어보지 못한 과감한 '시스루룩'이나 가슴이 깊게 파인 '클리비지룩'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시스루룩에는 원색에 포인트를 준 심플한 브래지어를 매치해야 보다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반면 클리비지룩에는 큼직한 패턴이나 화려한 무늬가 적용된 브라가 어울린다고 업계 관계자는 조언했다.

섹시쿠키의 '브라이트 섹시백 브라'는 퍼플·블랙의 원색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3줄로 연결된 등 밴드가 독특하면서도 여성미를 더해준다. 예스의 '오렌지 베리 브라'는 형광 오렌지와 블루 색상을 매치해 시원하면서도 발랄한 느낌을 준다. /김희주기자 kimsk0849

"말복 몸보신하세요" 4일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홍보도우미들이 말복 할인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말복 전날인 6일까지 롯데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백숙용 큰 닭'을 6800원, 삼계탕용 영계 를 3200원, 국내산 활전복(3마리)을 98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뷰티업계 '핫 썸머 이벤트' 잇따라

뷰티업체들이 여름철을 맞아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제품은 물론 여행상품권까지 경품으로 내걸었다.

디디알티(DTRT)는 16일까지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VIP 세트 수령 시 선착순으로 할인 쿠폰과 디티알티 베스트셀러 제품을 증정한다. 또한 남성 화장실에는 디티알티의 테스터 제품을 구비해 매장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준비했다.

이와 함께 공식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도 실시한다. 14일까지 추첨을 통해 클럽 입장권 및 디티알티 화장품을 선물로 준다.

CJ올리브영은 8월 한달 간 '몸보디 청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올리브영이 선정한 '청춘 아이템'을 구매하면 이벤트에 참여만 응모권을 준다. 추첨으로 300만원 여행 상품권(1명), 200만원 여행 상품권(5명), 올리브영 10만원 상품권(170명)을 각각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수능 D-100, 보양식 곰탕 40%할인

강강술래, 스트레스 지친 수험생·가족 응원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수능을 100일 앞두고 무더위와 스트레스에 지친 수험생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보양식 할인행사를 벌인다.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선물세트(350㎖ 5팩 10인분)는 1만8900원, 대용량선물세트(800㎖ 5팩 15인분)는 3만24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이 제품들은 HACCP 인증시설에서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전혀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만들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 먹을 수 있어 조리가 간편하며 레토르트 포장을 통해 실온에서도 9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다.

휴가철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테이크아웃 육류세트의 가정간편식도 10일까지 최대 40% 저렴하게 제공한다. 전 매장과 쇼핑몰(sullemall.com), 전화 주문(080-925-9292) 등을 통해 행복세트(한우불고기1kg+돼지양념1kg)와 사랑세트(한우불고기1kg+LA갈비900g)는 4만원, 감성플러스세트(한돈양념1kg+돼지양념1kg)는 4만5000원, 실속플러스세트(한우불고기1kg+한돈양념1kg)는 4만8000원에 판매한다. 또 왕양념갈비(2대 560g)와 술래양념(8대 520g), 한우불고기(1kg)로 구성된 어매이징세트도 8만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세트 메뉴 모두 배송비(3000원)를 추가하면 휴가지까지 택배로 보내준다. (도서산간 별도 문의)

이외에도 갈비맛쇠고기육포(6봉 2만1600원)와 참참한우떡갈비(360g·1만2000원), 모짜렐라돈가스(720g·1만5100원)도 40% 할인가에 살 수 있다. /정혁진기자 Hjung6600

"안쓰러운 인물들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죠"

영화 '해무'의 선장으로 돌아온 **김윤석**

온전히 스토리·캐릭터 매료된 작품
선원 지키는 아버지 같은 인물 변신
'해무'는 문학·영상 둘 다 담은 영화

인간의 마음은 짙은 안개와도 같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처럼 인간의 내면을 아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해무'(감독 심성보)는 속을 알 수 없는 인간성을 파고드는 드라마가 인상적인 영화다. 배우 김윤석(46)은 주인공 철주 역을 맡아 사람에 대한 이 내밀한 드라마에 깊이를 더했다.

'해무'는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에 오른 6명의 선원들이 짙은 해무 속에서 밀항자들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지난 2001년에 일어난 제7호 태창호 사건을 극단 연우무대가 동명의 연극으로 올렸고, '살인의 추억'의 각본가 출신 심성보 감독이 이를 스크린에 옮겼다.

김윤석이 연기한 철주는 극중 선원들을 가족처럼 챙기는 선장이다. 이야기가 가진 힘, 곧 드라마를 작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 그에게 '해무'는 "온전히 스토리와 캐릭터만으로 끌고 가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심성보 감독은 '해무'의 시간적인 배경을 IMF 경제위기가 닥친 이듬해인 1998년으로 삼았다. 시대에 의해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해무'의 중요한 테마다. 김윤석도 시나리오에서 처음 철주를 만났을 때 떠올린 이미지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구걸하러 다니는 홀부"였다. 그런 철주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선원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감정이 가장 중요했다.

"철주는 참 안쓰럽고 슬픈 인물이에요. 뭍에 내려서도 갈 집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선원들도 밤이 되면 다시 배로 돌아와요. 시대에 내몰린 사람들인 거죠. 철주는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김윤석은 매 작품마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줄 아는 배우다. 이번 영화에서는 뱃사람이 되기 위해 크고 작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다큐멘터리를 참고했고 직접 선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뱃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체중 증량도 마다하지 않았다. 기존 전라도 사투리와는 또 다른 여수 사투리 연기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연극 무대 출신 배우들과의 작업은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영화 속 철주는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다. 선원들에게 각자 맡은 일을 시키며 묵묵히 배를 몰 뿐이다. 그러나 선장으로서 카리스마를 보여주던 철주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예상하지 못한 과감한 행동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무섭고 어둡게 다가올 수 있는 행동이지만 김윤석은 이를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철주를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도 철주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와 비슷한 선택을 할 걸요? 철주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야 우리 영화는 더욱 의미로울 거예요."

영화 '해무' /NEW 제공

김윤석은 "'설국열차'를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 '해무'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문학과 영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해무'를 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블록버스터만으로 포장하기에는 알찬 내용이 정말 많아요. 캐릭터도 풍성하고요. 배에 대한 철주의 집착, 동식과 홍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화는 등장인물 모두가 주인공이니까요."

데뷔 이후 김윤석은 매년 쉬지 않고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올해는 '해무'에 이어 '타짜-신의 손'의 개봉을 앞두고 있고, '쎄시봉'과 '극비수사'(가제)까지 촬영하며 유난히 더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김윤석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됐다. 올 가을까지는 영화 촬영으로 바쁘게 보낼 것 같다"며 호탕한 웃음을 보였다. 이토록 지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 궁금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연기가 재밌다"는 뻔하지만 당연한 말이었다. '해무' 속 묵묵히 배를 몰던 철주처럼 김윤석 또한 삶의 전부와 다름없는 연기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정민희(라운드테이블) 디자인/최송이

화요비 전소속사 대표 고소

10억대 사문서 위조 주장

가수 화요비(본명 박레이 사진)가 10억원 투자계약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4일 화요비의 고소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참진 측은 "화요비가 전소속사를 상대로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화요비는 전소속사가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참진 측은 이어 "화요비가 최근 전소속사가 2010년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의뢰를 해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참진 측은 또 "투자 계약서상에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연대보증인 형태로 기재돼 있고 인장날인이 돼 있다"며 "그러나 본인은 연대보증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물론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소속사에서 소위 막도장으로 불리는 목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하는 등 위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혜준기자 yoe@

시크릿 컴백 카운트다운

앨범 티저 이미지 공개

걸그룹 시크릿이 컴백을 앞두고 대대적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시크릿은 오는 11일 강남역 M 스테이지에서 다섯 번째 미니앨범 '시크릿 서머'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연다. 이들은 국내 걸그룹 중 처음으로 공중파 TV CF와 광고 포스터 프로모션을 정개한 바 있다.

이번 쇼케이스는 누구나 관람 수 있는 오픈 쇼케이스 형식으로 진행되며 신곡 이외에 그간 시크릿이 발표한 다수의 히트곡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다.

시크릿의 '예쁨 인 러브' 무대를 더욱 가까이서 느끼고 싶은 팬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현재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이트 멜론에서는 댓글을 남기는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쇼케이스 초대권을 선물하고 있다.

앞서 시크릿 멤버 전효성과 송지은은 4일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컴백을 알렸다. 이날 시크릿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채널과 시크릿 공식 팬카페에 두 장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다.

공개된 이미지 속 두 멤버들은 그간 시크릿이 선보인 기존의 컨셉과 180도 다른 방전 매력을 선보였다. 블랙과 화이트의 뚜렷한 대비로 마치 '다크& 퓨어'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두 멤버는 각자 다른 콘셉트임에도 한층 성숙해진 고혹한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명희준기자

시크릿 전효성

tvN '꽃청춘 수사대'에 출연한 박민우 /CJ E&M

KBS2 '가족끼리 왜 이래' 박형식 남지현 /스타 네트웍스

주말 예능 이어 드라마도 책임

'룸메이트' 박민우 '모던파머' · '진짜사나이' 박형식 '가족끼리…' 출연

SBS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 박민우와 MBC '일밤-진짜 사나이' 박형식이 예능에 이어 드라마까지 주말 저녁을 책임지게 됐다.

최근 '룸메이트'에 출연 중인 배우 박민우는 오는 10월 방송 예정인 SBS 주말 드라마 '모던 파머'에 캐스팅되어 지상파 첫 주연 신고식을 치르게 됐다.

박민우는 2011년 tvN '꽃미남 라면가게'로 데뷔해 MBC '스캔들' JTBC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룸메이트'로 예능에 도전한 박민우는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그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서 중국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민우 소속사 킹콩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룸메이트' 4회 방송이 중국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에서 조회수 1000만 건을 기록했다. 또 최근 개설한 박민우의 웨이보(SNS) 계정은 1만 팔로워를 돌파했으며 중국 방송 안휘위성TV 웨이보 공식 계정에서 진행 중인 '떠오르는 미남 배우들 누가 다음의 김수현이 될까?'라는 설문 조사에서도 후보에 오르는 등 자세대 한류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진짜 사나이'의 박형식은 황금 독수리부터 편을 끝으로 하자 후 KBS2 새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 등장한다.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리드 보컬로 연예계에 데뷔한 박형식은 본업인 가수 활동보다 연기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초 KBS2 드라마스페셜 '시리우스'에서 쌍둥이 역할로 출연해 1인2역을 소화하며 연기 합격점을 받았다. 또 tvN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에서 이진욱의 아역을 맡아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부족함 없는 연기를 펼쳤다.

또 지난해 5월부터는 '진짜 사나이'에서 아기 병사로 활약하며 노래 연기 예능 등을 두루 섭렵했다. SBS '상속자들' 뮤지컬 '삼총사' '보니 앤 클라이드'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다.

박형식은 오는 16일 첫 방송 예정인 '가족끼리 왜 이래'에 열기 완성한 면베 박수 자달봉 역을 맡아 남지현(강서울 역) 서강준(윤은호 역) 등 젊은 배우들과 함께 20대의 풋풋한 로맨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kmk@metroseoul.co.kr

김소연

걸스데이 혜리

가수 지나

'진짜 사나이'에 여군이 떴다

김소연·라미란·혜리·지나 등 훈련소 입소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가 여군 특집을 진행한다.

'진짜 사나이' 측은 "여군 특집에 배우 김소연 홍은희 라미란 걸스데이 혜리 가수 지나 개그우먼 맹승지 쇼트트랙 선수 박승희 등 7명의 여성 스타들이 출연한다"며 "현재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여자 부사관이 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훈련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제작진은 "지금까지 여군들의 세계가 방송으로 공개된 적이 없었던 만큼 '진짜 사나이-여군 특집'을 통해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고 다 같이 생활관에서 동고동락하는 등 군대에 적응해가는 여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선사할 예정"이라며 "관등성명 군가 제식 등 태어나 처음 경험하게 되는 낯선 군대문화 앞에 여자스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진짜 사나이-여군 특집'은 이달 중 방송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전 남편의 결혼식,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졌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my secret hotel

킬.링.로.맨.스

연출 홍종찬 극본 김도현 | 김예리

8월18일 {월} 밤11시 tvN 첫방송

두 가지 실버로맨스 공감하나요?

윤여정 한국판 황혼 이혼… 나문희·최불암 "둘이 살자"

주말 가족 드라마가 전혀 다른 황혼의 사랑을 조명하고 있다. KBS2 '참 좋은 시절'의 윤여정과 김영철은 이혼했고, SBS '기분 좋은 날'의 나문희와 최불암은 더 애듯한 부부애를 보이고 있다.

'참 좋은 시절' 장소심(윤여정)-강태섭(김영철)의 이혼은 극의 반전이었다. 장소심은 모든 걸 포용하고 헌신하는 전형적인 한국판 어머니다. 지난 3일 방송 전까지 그의 이혼 선언은 큰 공감을 얻었다. 엄마가 아닌 한 여인의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 것.

그러나 지난 48회(3일)에선 장소심이 이혼하려는 진짜 이유가 밝혀졌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다. 30년 동안 가족과 등지고 산 강태섭에게 아버지 자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이혼하려 했다.

어머니 그 동안 어머니를 이해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던 둘째 아들 강동석(이서진)은 "어머니는 떠나시고 아버지가 이 집에 계시면 되겠네요"라고 분노했다. 장소심은 아들에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윤여정 /삼화네트웍스 제공

아직 모자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한국판 어머니의 황혼 이혼이 어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나문희·최불암 /SBS 제공

떻게 그려질 지 기대가 높다.

'기분 좋은 날' 이순옥(나문희) 김철수(최불암)의 황혼 로맨스는 시청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두 사람의 사랑은 아내 이순옥이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후 급격히 애틋해졌다.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내를 챙기고 애정표현을 한다. 함께 장을 보며 젊은 시절을 추억하기도 한다.

이순옥은 "이제 둘만 살아보자"고 남편에게 말했다. 지난 3일 부부는 두 사람만 살게 될 작은 집을 보러 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렸다. 시청자는 '나문희가 진짜 할머니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프다', '이 부부처럼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한다.

'기분 좋은 날'을 집필한 문영남 작가는 착한 가족 드라마의 대표주자다. 작품은 사랑과 결혼, 가족의 참된 의미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드라마다. 이순옥 김철수 부부의 묵직하고 잔잔한 로맨스가 파킨슨병을 극복할 수 있을 지, 또 인스턴트 사랑에 길든 현대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지 두고 볼 만하다.

/전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 센터 미디어홀에서 열린 코믹컬 '드립걸즈 시즌3'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출연진들이 코믹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개그우먼 8인 방송수위 넘는 '야한 개그'

코믹컬 '드립걸즈 시즌3' 레드·블루 팀 더블 캐스팅

코믹컬 '드립걸즈'에 인기 개그우먼이 총출동한다.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 센터 미디어홀에서 열린 '드립걸즈 시즌3' 제작발표회에 개그우먼 이국주·박나래·장도연·장윤희(이상 레드팀), 정주리·홍윤화·심진화(이상 블루팀), 연출자 오미영이 참석했다.

2012년 대학로에서 첫 선을 보인 '드립걸즈'는 앞선 시즌에서 개그·노래·퍼포먼스에 집중한 옴니버스 구성을 취했다면 이번 시즌부터 하나의 이야기로 극을 이끌어 간다. '드립걸즈 시즌3'는 외딴섬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 안에 개그우먼들의 코믹한 연기와 노래, 퍼포먼스를 더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나뉜 더블 캐스팅으로 같은 캐릭터에 두 개의 다른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레드팀 이국주는 "첫 회 공연이 매진되면 관객 모두에게 백허그(포옹)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시즌엔 관객 전원에게 키스와 햄버거 선물 공약을 내세웠는데 다들 햄버거만 받아 갔다. 백허그는 거부해도 무조건 다 해드릴 것"이라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블루팀 정주리는 "심진화 씨 남편인 개그맨 김원효 씨가 햄버거를 선물하기로 했다. 대단한 외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선 개그우먼들의 폭탄 발언이 이어져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박나래는 "개그우먼 안영미 씨가 '석드립'으로 유명하지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 이제 박나래가 왔다"며 공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국주 역시 레드팀 장도연·박나래·장윤희를 가리키며 "어느 지역 서커스를 가도 이런 그림 못 본다"고 덧붙였다. 장윤희는 "연습 시간보다 술 마시는 시간이 더 많다"고 말해 나머지 출연진을 당황케 만들었다. 정주리는 "SBS KBS MBC 개그우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며 "개그우먼으로서 망가지는 것은 직업이니 괜찮다. 다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 남자한테 인기가 많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드립걸즈 시즌3'는 오는 23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1월1일까지 영등포타임스퀘어 CGV 신한카드아트홀에서 공연한다.

/김민지기자 [illegible]@

이종석 중국 패션 브랜드 모델

신 한류스타 입지 굳히기… 현지 러브콜 '꾸준'

배우 이종석(사진)이 중국 유명 패션 브랜드 선마의 모델로 활동한다.

선마는 중국 내 1위 그룹이며 현지 8000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의류 기업이다.

업계는 이종석을 모델로 발탁해 세계적으로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마의 한 관계자는 "하얀 와이셔츠만으로도 독보적인 매력을 보이는 이종석의 이미지가 선마와 잘 어울린다"며 "탁월한 연기력과 멋진 외모로 매출 상승과 브랜드 품격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석은 지난해 KBS2 드라마 '학교 2013',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올해 SBS '닥터이방인'으로 국내외에서 흥행력과 연기력을 두루 갖춘 배우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인기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으며 현지 관계자들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다.

그는 선마 외에도 여러 광고와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닥터 이방인' 종영 후 여러 일정을 소화하며 차기작을 선정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신인 가수 오디션 새 방식 도입

뮤직앱 '부르고'서 기획사 합동 오디션 진행

가요계에 새로운 오디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기획사들이 스마트폰 앱 '부르고'를 이용해 신인 가수를 캐스팅하는 오디션을 진행한다.

4일 무료 뮤직앱 '부르고'에 따르면 '뮤다닥'와 국내 최대의 기획사 합동오디션 '올인원 캐스팅'을 진행한다. '올인원 캐스팅'은 '뮤다닥'의 주최로 DSP미디어, 판타지오, 플레디스, CJ E&M, 미스틱89 등 국내 25개 이상의 유명 기획사 캐스팅 디렉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하는 국내 최대의 기획사 합동오디션이다. 지원자가 자신의 재능을 단 한번의 오디션으로 여러 회사에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을 갖췄다.

올해 시즌3를 맞는 '올인원 캐스팅'은 시즌2에서 1만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최종 80여 건의 합격자를 배출할 만큼 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결선 참가자들에게는 1대1 맞춤형 트레이닝을 제공해 참여기획사들의 최종 만족도를 높이는 등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도 했다.

/김성현기자 [illegible]@

"모성애 연기 고민 없었죠"

송혜교 '두근두근 내 인생' 엄마 변신

"엄마 연기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시나리오의 느낌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처럼 아이를 대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

배우 송혜교가 3년 만의 한국영화 복귀작인 '두근두근 내 인생'(감독 이재용)으로 생애 첫 모성애 연기에 도전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열일곱 나이에 자식을 낳은 어린 부모와 열일곱을 앞두고 여든 살의 신체 나이가 된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송혜교는 당차고 속 깊은 엄마 미라 역을 맡았다.

4일 오전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송혜교는 "시나리오가 워낙 재밌었다. 이재용 감독님에 대한 믿음도 강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며 "미라 나이가 나랑 비슷했고 캐릭터도 밝고 당당하며 철이 덜 든 느낌이 있었다. 엄마 역을 소화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모성애 표현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에 초점을 맞췄다. 송혜교는 "모성애 연기를 위해 다른 영상이나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할 생각은 없었다. 시나리오대로 아이를 대하면서 연기하려고 했다.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은 송혜교와 강동원이 부부로 캐스팅돼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옴니버스 영화 '카멜리아'로 한 차례 연기 호흡을 맞췄다. 송혜교는 "강동원과 주로 사적으로 만나서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잘 몰랐다. 이번에 만나보니 열정이 넘치더라. 내가 설렁설렁하면 강동원이 꼼꼼하게 잘 챙기고 열심히 했다. 일로 만나니 더 멋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송혜교(왼쪽), 강동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영화로 관객들과 만나게 된 소감도 남달랐다. 송혜교는 "20대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 작품을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어 요즘은 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작품이라 더 마음이 간다. 큰 욕심은 없다. 영상미 한 열정이 관객에게 전달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재용 감독은 송혜교, 강동원 캐스팅에 대해 "대중적인 화려한 이미지 외에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애란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 '두근두근 내 인생'은 다음달 3일 개봉 예정이다.

/정병호기자 solgasin@metroseoul.co.kr

박보영 엄지원 '소녀'로 만난다

1930년대 배경 웰메이드 미스터리 영화

영화 '소녀'(가제, 감독 이해영)가 박보영(왼쪽 사진), 엄지원(오른쪽)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3일 크랭크인했다.

'소녀'는 1938년 경성의 요양 기숙학교에 한 소녀가 전학을 오면서 겪게 되는 기이한 일들을 그린 미스터리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페스티발' 등을 연출한 이해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작품이다.

박보영은 극중 기숙학교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전학생 주란 역을 맡았다. 영화 '과속스캔들' '늑대소년' '피끓는 청춘'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온 그녀는 이번 작품에서 순수함과 불안한 감성이 공존하는 소녀를 연기한다.

엄지원은 소녀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기숙학교 교장을 연기한다. 소녀들이 선망할 기품과 지성을 갖추고 있지만 수란이 학교의 비밀에 접근할수록 점점 본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파격적인 연기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는 지난 3일 대구에 위치한 계성 학교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다. 이날 촬영은 전학을 오기 전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소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란이 알게 되는 장면으로 진행됐다.

이해영 감독은 그 동안 독특한 소재를 비고드는 섬세한 통찰력과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충무로의 타고난 이야기꾼답게 지금껏 보지 못한 웰메이드 미스터리 영화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소녀'는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정병호기자

'루시' 뤽 베송 감독 20일 내한

언론시사회·레드카펫 참석 … 최민식 재회

영화 '루시'의 뤽 베송 감독이 20일 내한해 레드카펫 행사로 한국 관객들과 만난다.

4일 '루시'의 수입배급사 UPI코리아는 "뤽 베송 감독의 내한을 확정한 '루시'가 오는 20일 언론시사회와 레드카펫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뤽 베송 감독은 20일 오후 7시 여의도 IFC 몰에서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열리는 언론시사회에는 최민식과 함께 참석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루시'는 평범한 삶을 살던 여자 루시(스칼렛 요한슨)가 절대 악 미스터 장(최민식)에게 납치돼 이용당하다 우연히 모든 감각이 깨어나게 되면서 두뇌와 육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 뤽 베송 감독이 오랜만에 액션 영화 연출로 복귀해 화제가 된 작품이다.

지난달 25일 북미 지역에서 먼저 개봉한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7월30일까지 58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여름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개봉은 다음달 4일 예정이다.

/정병호기자

박해일·신민아 로카르노행

'경주'로 영화제 참석 … 13일 출국

영화 '경주'의 장률 감독과 주연배우 박해일, 신민아가 제67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 출국한다.

'경주'는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67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1946년 처음 개최된 이후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제로 매년 8월 스위스에서 개최되고 있다.

장률 감독과 박해일, 신민아는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참석해 영화제 공식행사로 해외 영화 관계자들과 영화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경주'는 7년 전 보았던 춘화를 찾아 경주에 온 수상한 남자 최현(박해일)과 우아한 외모와는 달리 엉뚱한 찻집 주인 공윤희(신민아)의 만남을 담은 작품. 박해일, 신민아의 연기 호흡, 경주의 명소를 배경으로 한 고즈넉한 분위기로 기대를 모았다. /정병호기자

날씨

8/5 火 일출시각 05:39 일몰시각 19:3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6.co.kr

서울 26/31 · 철원 24/31 · 대전 24/31 · 전주 24/32 · 광주 24/31 · 제주 25/31
강릉 25/33 · 울릉도 24/28 · 대구 24/32 · 포항 25/32 · 울산 24/31 · 부산 24/30

장마 때는 손발이 물에 젖는 경우가 많아 세균에 감염되는 간질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석 피부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신세대학교 서울학병원(www.nh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9	4	8			
		8		2				
3	2		1				4	
	5					3		9
	3	9				7	8	
2		7					1	
	1				6		3	4
				8		1		
			2	1	5			6

스도쿠 정답

					4		2	9
9		8		7			1	
2	5					4		
			6	3				8
		4	9		1	6		
7				5	8			
		3					8	2
	8			4		5		1
1	2		3					

문제 제공 - 보누스
(엔시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시간은 없는데 건강은 지키고 싶다면

강소형의 본초 테라피

"건강을 관리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고 싶은데 정보가 없다."

"복잡하게 뭔가를 챙겨야 하는 건 질색이다."

본조(本草) 테라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건강법이다. 쉽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본조는 약성을 가진 천연재료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활용되는 다양한 식품과 약재를 포함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 돼지고기·닭고기·대추·밤·콩·감·수박·오이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본조에 해당한다.

활용법 역시 간단하다. 본조를 넣고 끓인 물을 식수 대용으로 마시거나, 밥을 할 때 본조를 함께 넣어 만들거나, 세수를 할 때 본조 끓인 물을 세안수로 사용하는 식이다.

중요한 것은 각 본조가 가진 고유한 성질을 따져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조는 보통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로 나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양인(陽人)인지 음인(陰人)인지를 고려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본조를 써야 한다.

보통 양인들은 열과 땀이 많은 편이며 소화력이 좋고 더위보다는 추위에 강하다. 이들에게는 찬 성질의 본조가 좋으며 뜨거운 본조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음인은 속이 냉하고 소화력이나 신진대사가 약해 쉽게 붓고 살이 찐다. 따뜻한 성질의 본조가 좋고 찬 성질의 본조는 피해야 한다.

또 평소 수족냉증이나 하체비만, 잘 붓는 체질을 가졌다면 음인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인의 약 70%가 음인이다. 본조 테라피를 이용해 간편하게 몸을 다스리고 싶다면 냉장고부터 열자. 생강·마늘·고추 중 하나를 꺼내면 된다. 이들 모두 양기가 강한 본조로 몸 속 열을 올려 신진대사가 활발하도록 돕는다.

말린 것을 사용하면 좋지만 생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시중에 파는 말린 가루를 넣어도 좋다. 물 2ℓ에 본조를 밥숟가락으로 반 수저 정도 넣고 15분 정도 끓여 식수 대신 수시로 마신다. 부종과 냉증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촉진해주는 역할도 해준다.

/본초학 박사·강소형 한의원 원장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조카가 호프집을 같이하자고 하는데 성격 안맞고 사업운없어 피하세요

Q zkvpemshd 여자 57년 음력 5월 2일 낮 1시 / 남자 73년 음력 10월 16일 아침 8시

2000년부터 형제들과 부동산투자를 하여 오히려 집 2채를 날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불쌍히 여겨 2013년에 집 1채를 주셔서 2014년 봄에 팔았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하니 1억 넘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마지막 남은 작은 빌라에서 살며 월세를 하며 휴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같이 호프집이라도 하자고 합니다. 돈은 반반씩 대자는데 조카는 식품관련 중앙직장을 다닙니다. 따로 할까라고 하는데 어떨는지요? 하고 싶은 맘도 들긴 하나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A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동업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나 창조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업은 친한 사람일수록 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조카와 한다는 것은 망설여지겠지요. 귀하는 생일지에 장성(將星)을 두고 정관(正官)으로 의리가 있고 단정합니다. 조카는 괴강살에 독존적이고 강렬한 성정으로 자기제일주의 성향이기 때문에 넘의 타협이 어려워 동업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일하는데 생산적인 일로 회의를 한다 해도 상하관계로 이거하라 저거 하라 명령으로 지적한다는 마음을 갖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 게 괴강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동업하면 오래 이어왔던 원혁관계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므로 오히려 동업을 하신다면 적당한 관계만 이어오는 시원한 파트너로서 만난 사람과 하는 게 좋겠지요. 게다가 사업 운이 두 분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상대가 나이가 젊어도 그러지를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73년생은 다시 어려 좋을 빌려 호프집에 투자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73년생 친구나 동료들 주변 손님들이 온다 해도 거의 외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 서로 엇갈린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잦아지고 여기에 시간을 자꾸 뺏기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동업적 대등한 관계에서 따지기만 들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장사를 말리지는 않습니다. 귀하 57년생은 나이가 있어도 재물 운은 이어지니 장사를 해도 손님이 많아서 재물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5일(음 7월 10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계획 없는 지출은 삼가라. 60년생 주거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긴다. 72년생 경쟁자의 동향을 잘 살피고 대응할 것. 84년생 관대하게 생각하면 결과가 좋다.

소 49년생 얻어 올리기 잘 생긴다. 61년생 뜻밖의 공돈이 생겨 이득. 73년생 고생한 사람은 어둠의 끝이 보인다. 85년생 보고 또 보고 싶은 이성이 생겨 쥐다람이 절로~

호랑이 50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 기대하라. 62년생 꼬였던 일은 차나씩 풀린다. 74년생 꿈은 능력에 맞춰서 꾸어라. 86년생 야심차게 준비한 일에 박수가 쏟아진다.

토끼 51년생 말만 잘해도 문제는 풀린다. 63년생 큰 그릇이 많이 담으니 배포 키워라. 75년생 적정선은 그게 공한 줄 몰이 생긴다. 87년생 갈는길 멀고 한 우물만 파라.

용 52년생 급한 불부터 꺼라. 64년생 배우자와 밀월관계 더 공고해진다. 76년생 선봉 보따리는 타이밍 맞춰 풀어야 효과~ 88년생 소망한 일은 속도가 붙는다.

뱀 53년생 움직이는 만큼 배가 부르다. 65년생 막힌 일은 상식의 밖에서 생각해 보라. 77년생 상사의 괴찬이 만땅하게 된다. 89년생 애물전 긍신시키는 골뚜기가 되지 않도록~

말 42년생 투자 부추기는 사람 경계하라. 54년생 동서쪽이 행운의 방향이다 참고할 것. 66년생 적선을 다하면 작은 기적 출어난다. 78년생 기죽지 말고 자기 목소리 내라.

양 43년생 근심이 없어 편안하다. 55년생 대접 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할 것. 67년생 풍고기가 큰 강에 뛰어든 격이다. 79년생 공금 사용자는 투명성에 신경 써라.

원숭이 44년생 배우자 뜻 따르면 만사형통~ 56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68년생 주변의 충고는 귀담아 들어라. 80년생 성공의 기억에 빠지면 실패 부른다.

닭 45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57년생 꼬였던 일은 첫 씨부터 살려라. 69년생 마음먹었던 일은 드디어 이루어진다. 81년생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툼 조심~

개 46년생 배우자와 생각의 차이 인정할 것. 58년생 산에서 물고기를 구한 격이다. 70년생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진퇴양난~ 82년생 심의껏 하면 무난한 결과 얻는다.

돼지 47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59년생 욕심을 내려놓으니 근심이 싹~ 71년생 주관에 확고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 83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우승이 목표, U-20 여자축구 대표팀 /뉴시스

U-20 여자축구 월드컵 첫우승 도전

홍콩·핀란드 현지 연습경기 완승
장슬기 '지소연 실력 넘어서나?'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부진을 대국낭자가 만회한다.

한국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대표팀이 세계 첫 정상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정성천 감독이 이끄는 U-20 여자 축구대표팀은 9일부터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2014 U-20 여자월드컵에 출전한다.

한국이 바라는 목표는 대회 첫 우승이다. 3차례 U-20 여자 월드컵에 나간 대표팀이 거둔 최고 성적은 3위다.

당시엔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이 맹활약했다.

그러나 대표팀은 직전 대회인 2년 전 8강에서 개최국 일본에 1-3으로 져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한국으로선 직전 대회의 아쉬움을 우승과 함께 날려버리겠다는 각오다.

전망은 밝다. U-20 여자 대표팀은 U-20 여자월드컵 예선으로 치른 지난해 U-19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4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었다.

장슬기 /뉴시스

대표팀은 6월 캐나다, 미국을 돌며 전지훈련을 하고 지난달 목포, 파주 전지훈련에 나서며 막판 조직력을 끌어올렸다. 정성천 감독 스스로 지난해보다 대표팀이 스피드, 조직력 모두 나아졌다고 자평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있다.

지난달 27일 캐나다로 출국, 현지 적응에 들어간 대표팀은 홍콩, 핀란드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각각 7-0, 3-0으로 완승하며 영점 조정을 마쳤다.

조별리그에서 잉글랜드, 멕시코, 나이지리아와 함께 C조로 편성됐다. 뚜렷한 강호가 없어 조별리그부터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장슬기(강원도립대)가 한국의 목표 달성을 이룰 핵심 요원으로 점쳐진다. 4년 전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한국이 깜짝 우승할 때 힘을 보탠 장슬기는 지난해 U-19 AFC 여자 챔피언십에서도 5골을 터뜨려 득점왕과 최우수선수(MVP)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미국, 브라질, 잉글랜드 등 16개국이 출전한다. 4개국씩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2팀이 8강에 올라 토너먼트제로 우승팀을 가린다.

한국은 오는 7일 잉글랜드를 상대로 첫 경기에 나선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심판들이 달라졌어요

이현초의 베이스볼 카페

후반기부터 비디오판독인 '심판합의판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행 결과 감독들의 큰 불만은 요청 시간 제한이다. 문제의 판정이 내려진 직후 30초 이내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방송사가 재생 화면을 잘 보여주지 않는나. 고민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심판이나 현장 감독은 대체로 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판과 감독이 옥신각신하는 실랑이 없었다. 총 17번 심판합의판정을 요청됐고 7번 판정번복을 이끌어 냈다. 30초 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보여 불만은 사라질 전망이다.

비디오 판독과 함께 주목되는 진짜 변화는 바로 심판이다. 전반기 내내 오심 시비에 시달렸던 심판들이 후반기부터는 유난히 정확성이 좋아졌다. 한 미경을 쓰고 판정을 내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실제로 17번의 판독 요청 가운데 심각한 오심이라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없었다. 초고속 카메라로 돌려야만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다. 세이프 같은데도 아웃으로 정확하게 판정하는 모습도 많았다.

실로 유의미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야구계에서는 제도 도입과 함께 오심의 압박감에서 벗어나면서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풀이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자면 기계 도움 없이 판정을 하겠다는 인간 의지의 결과이다.

비디오판독의 도입은 심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심판부 내부에서는 반발과 위기감도 팽배했다. 이것이 반사적으로 기계를 이기겠다는 의지와 정교한 판정으로 나타났다. 심판에 대한 불신도 줄고 있다. 기계가 인간을 바꾼 셈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코스타리카 나바스 레알 마드리드 입단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배출한 스타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28·코스타리카, 사진)가 세계적인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4일 구단 홈페이지에 나바스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6년이다. 신체검사를 거친 뒤 5일(현지시간) 홈 구장인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입단식을 개최한다.

나바스는 스페인 리그 레반테 소속으로 계약 기간은 내년 6월까지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1000만 유로(약 139억원)의 이적료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바스의 연봉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코스타리카의 주전 골키퍼인 나바스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팀이 8강에 오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코스타리카는 우루과이, 잉글랜드, 이탈리아와 죽음의 조에 배정됐지만 매 게임 계속된 나바스의 선방에 힘입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나바스는 5경기 중 세 차례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앞서 브라질 월드컵 득점왕인 하메스 로드리게스(23·콜롬비아)를 영입하는 등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전력을 보강했다. /유순호기자 suno@

'욕설 퇴장' NC 찰리 징계 결정

제재금 200만원·유소년 야구봉사 40시간

경기 중 주심의 볼 판정에 폭언으로 불만을 표출하다가 퇴장당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사진)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찰리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찰리는 전날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판 욕설과 폭언을 섞어 퇴장당했다. 상벌위원회는 찰리에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했다. 7항은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프로야구 전적 4일

■잠실

넥센	010	200	010	4
LG	040	020	00X	6

[illegible]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